

일본 도서지역의 혁신자들(entrepreneurs)의 지역정책과 발전에 대한 인식 —고토(五島)列島 후쿠에(福江)市의 사례—¹⁾

홍성흡*

서울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도서지역에서 지역활성화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혁신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지역정책과 발전에 대한 인식체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지역활성화를 이룩하려면 내발적 발전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각 지역의 나름의 생태적·역사적·사회경제적·문화적 조건에 걸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福江市의 혁신자들이 추구하는 발전의 길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점에 입각해 있고 이들의 인식체계 속에서도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福江市의 혁신자들의 인식체계에서 지역정책의 핵심적인 준거기준이 되는 것은 ‘도서성(島嶼性)’이다. 도서성의 개념법주는 중심과 주변, 전통과 현재, 발전과 보존이라는 일견 상호 대립되는 듯이 보이는 인식체계상의 준거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준거기준들이 도서성이라는 개념과 매우 복잡한 형태로 연관을 맺으면서 지역정책과 발전전략을 만들어낸다. 상황에 따라 도서성과 관련을 지닌 생태적·역사적·사회경제적·문화적 자원들이 각 준거기준의 특정 의미를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도서성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애매모호하며 중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원을 놓고 올바르게 해석했는지가 아니라 당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합한 해석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서성의 참된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성이라는 개념을 끈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잇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풍요롭고 의미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일상적인 자원을 특별한 것으로 포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내에서 주어진 조건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 냄으로써 죄선의 적응전략을 찾는데 향도 역할을 하는 것이 혁신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신자들은 새로운 지역정책을 만들고 이를 지역의 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다.

I. 서 론: 문제제기와 논의의 범위

최근의 세계화 추세는 세계체제의 전일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경제체계의 전세계적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 지원과제)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이 글에서는 처음 나온 일본식 용어나 이름에 한해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한자를 괄호 안에 넣었고 그 다음부터는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확산과 자본주의적 이념과 가치의 지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화가 특정 국가나 사회에서 구현되는 구체적 방식은 Friedman의 언급처럼 ‘적어도 서구의 경험이 매우 달라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다원적 해석이 가능해질 것’(1988: 457-459)으로 보인다. 문화변동에 대한 여러 민족지적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세계화의 영향은 기존의 사회문화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체계가 성공적인 자기변신을 통해 전통을 재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적응력이 뛰어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玉野井芳郎은 ‘지역’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에 착목하여 ‘지역에는 <生活者>라는 지역의 담당자가 있다. 생활자들은 지역에서 땅과 물로 이루어진 일상성의 생태적 환경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지키고 있다.’(玉野井芳郎, 1985: 76)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개념에 뿌리박고 그가 주장한 것이 ‘지역주의’이다. 그의 지역주의의 개념은 ‘지역의 생활자들이 지역의 자연, 역사, 풍토를 배경으로 지역사회 혹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을 지니고 경제의 자주성을 포함하여 스스로의 정치적·행정적 자율성과 문화적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玉野井芳郎, 1973: 35; 1977: 7)이다.

玉野井芳郎의 견해를 보다 발전시켜 ‘내발적 지역주의’를 창안한 인물이 清成忠男이다. 그는 내발적 지역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를 재조직하려는 이념에 기반하여 토지이용을 계획화하고 주민참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며 지역경제의 자립화를 이루어야 한다’(清成忠男, 1978: 62)고 주장하였다. 즉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혁신을 기본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玉野井芳郎이나 清成忠男이 주장한 바대로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근대적인 공동체적 현대의식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확보해야 하고 개별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개성있고 독창적인 지역만들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여러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東海自治體問題研究所, 1984; 本田昭一, 1987; 乘本吉郎, 1989; 松岡昌則, 1991; 山寄充, 1991; 橋本徹, 1991; 橫田克巳, 1992).

이상의 논의에서는 지역발전의 모티브를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독특성으로부터 찾아내어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향은 개별 지역의 발전의 전략과 경로가 소위 서구적 근대화와 다르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싹튼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과 전통적인 요소가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요소로부터 출발한 지역발전이 부작용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을 근대화 및 세계화과정에서 매우 성공적인 적응의 사례로서 거론하는 문헌이나 영상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흔히 지역사회 수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운동들²⁾이 그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고 있다. 지수화된 각종 지표를 분석해 보면 이런 평가가 타당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를 준거로 하여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 부분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정 사회의 사회경제적·문화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또 다른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무모하다. 단기적인 실용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부작용이나 역기능적 측면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성이 높다.

또한 근대화나 세계화에 따라 일본내의 특정 지역사회가 성공적인 적응을 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도 의문이 남는다. 특히 주변화된 과소지역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러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성공적’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지수화할 수 있는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내려질 수도 있지만 내부자적 관점(native point of view)에 입각한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즉 특정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미래에의 전망과 관련하여 어떤 비전을 지니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개발 혹은 변화에 대하여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얼마나 활기차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시구조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중요성과 미시구조적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류학의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론이나 방법론의 형태로 간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총체론적 연구의 모범을 보였다고 일컬어지는 말리노프스키의 트로브리안드섬에 관한 민족지 (Malinowski, 1961)의 예라든가 국지적인 상황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문제의식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지적 (Gluckman, 1964), 인류학자의 작업은 촌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촌락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인식 (Geertz, 1973),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과정 속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견해들 (Barth, 1956, 1967, 1981; Bennett, 1969), 사회문화적 변동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 (문화적 broker-Wolf, 1965; Boissevain, 1974; 경제적 entrepreneur-Barth, 1963; Kunkle, 1970; Bailey, 1960)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 자본주의 체계 속으로의 종속과 편입과정에서 현지민들이 정치적·의례적·정신의학적·상징적 영역에서 저항을 펼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 (Scott, 1985, 1990; Taussig, 1980; Ong, 1987), 현지민의 삶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구속되고 결정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다국적기업과 국가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드러내 보

2) 최근의 지역사회 内外部로부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수준의 운동 일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로는 쓰쿠리(つくり), 오코시(おこし), 지역개발, 지역진흥, 지역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 개념의 사용방법 및 어감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홍성흡(1997: 155-156)을 참조하기 바람.

인 연구 (Nash, 1979; Stoler, 1985; Gjording, 1988)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류학적 연구와 조사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인류학적 연구 전통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지역활성화운동을 펼치는 단체 속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성원들을 혁신자(entrepreneur)로 파악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제적·사회문화적 중개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농민사회에 대한 분파집단연구나 중간층연구(subaltern study), 역사인류학 분야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담론 분석에서 잘 나타나듯이 어떤 상황에서 현지민들이 저항의 전략과 협력의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황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와 토착 지식체계(local knowledge)의 작동 메카니즘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글은 일본의 섬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참여관찰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1994년 여름부터 1997년 초에 걸쳐 다섯 차례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기간은 약 50일 정도이다. 본격적 의미의 인류학적 현지조사로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 글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세밀하고 정교한 수준의 담론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역활성화의 발전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혁신자들의 인식체계상의 핵심적인 준거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정체성의 근거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선 최근 일본의 지역활성화운동에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내발적 발전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발적 발전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은 福江市의 혁신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사지역인 五島列島 福江市의 일반적 배경과 지역활성화운동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혁신자들의 인식체계에 대한 고찰에 들어가서는 지역활성화를 이루고 발전을 가져오며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준거기준이 동원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최근의 지역활성화운동의 발전전략과 이념

일본의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여러 형태의 운동들은 그 역사적 연원이 매우 깊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예로서 色川 (1978, 1994)은 쇼와(昭和)시대 이전의 계몽주의적衛生운동과 정치지식의 학습운동, 치치부(秩父)의 코민토(国民党)운동(1884) 등을 들고 있다. 이들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色川은 일본의 지역적 민중운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열이나 해체가 쉽게 나타났었다고 언급 (1994: 250-252)하고 있다. 즉 地緣에 기초한 사회적 움직임이 다른 요소에 기초한 경우보다 지속성과 호소력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³⁾.

최근의 지역활성화운동은 지역의 독특한 생태적·역사적·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는 경제적 풍요함에 상응하는 정신적 풍요로움의 부재와 전국의 획일화 혹은 一極化에 의해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자연·역사·문화적 특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 경제 및 사회·문화 등이 급속히 국제화됨에 따라 지역의 空洞化가 진전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77년 總理府의 조사결과는 발전과 지역·생활·자발성과 자주 등의 개념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준다(總理府, 1977). 이 조사는 1977년을 기점으로 사회 일반의 가치관이 물질적 풍요로부터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제보다는 문화라는 기준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평가하고,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바쁘게 일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유로움을,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획일화보다는 개성을, 이익과 성장 및 거대화를 추구하는 경제로부터 公益과 道徳 및 正義 규모화를 추구하는 경제를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지역활성화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논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포스트 무라오코시의 시대’(猪瓜, 1989: 9)라든지 ‘새로운 共同性의 구축 시대’(山崎丈夫, 1994: 153), 많은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윤택함보다는 살기 좋은의 개념으로의 변화’ 등등이 이러한 주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요체는 지리적 위치나 생태적 환경·역사적 조건이나 경험·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고 개별적인 지역활성화운동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단계론적 발전론이나 근대화론에 대해 회의하면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흔히 ‘내발적 발전론’(endogenous development)³⁾이라고 불리는 이 견해는 ‘經濟人’(economic man)을 전제로 한 경제학적 발전 패러다임으로부터 인간의 전인적인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西川, 1989: 17-18). 내발적 발전론에서는 타율적이고 성장 우선의 발전 개념을 부정하고 함께 나누어 가지기와 인간성의 해방 등 共生의 사회 만들기를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변혁의 경로라든가 변혁되어 가는 개별 사회의 모습과 개별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되어 가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별 사회의 고유한 자연 생태계와 역사 및 전통적인 문화 유산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발적 발전의 구체적 양상은 개별 사회의 구성원들과 집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발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가와 협동주의, 자주적 관리라는 조직 원리에 기초

3) 지역활성화운동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살펴 볼 예정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활성화운동이 마치 전통과 단절된, 혹은 산업화나 자본주의 고도화의 어떤 단계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때름이다.

한 집단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내발적 발전의 기초단위로 떠오르는 것이 공동체성을 지닌 소집단을 상정한 ‘지역’개념이다. 지역이라는 조직적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내발적 발전은 자력갱생과 자주성을 지닌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유산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의 기초 위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혁신을 이루어 냄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西川 ibid: 18-31)고 본다. 전통의 재발견, 재창조라는 것도 특정한 상황의 산물인 것이다 (Hobsbawm & Ranger, 1983: 1-3).

이러한 새로운 발전 개념을 이념적 기초로 한 활동의 상징적 결실이 1973년에 결성된 ‘지역주의 연구회’이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1976년에는 정기적인 ‘지역주의 연구집담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어 지방의 중요성과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전국의 각 지역은 나름의 조건에 맞는 생태적·역사적·사회경제적·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의미를 부착시켜 지역활성화의 자원으로 삼고 있다.

III. 五島列島 福江市의 지역활성화운동

1. 福江市의 일반적 배경

五島列島는 큐슈(九州)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群島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속한다. 五島列島는 후쿠에지마(福江島), 히사카지마(久賀島), 나루시마(奈留島), 와카마쓰지마(若松島), 나카도오리지마(中通島)의 다섯 섬과 그 부속 도서 약 140개로 이루어져 있다 (<지도> 참조). 福江市가 속해 있는 福江島는 1990년 國勢조사에 의하면 일본 도서 가운데 인구 순위로는 3위(47,501명), 면적으로는 6위에 해당하는 섬으로 일본의 도서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福江島의 중심지인 福江市에는 1995년 현재 福江島 전체 인구의 약 2/3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1965년 40,257명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1995년 현재는 28,772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매년 늘어나는 전형적인 고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島外 轉出率은 市內에 대학이 없고 취업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992년 9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령층이 인구 감소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島外지역과의 교통은 1963년 福江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는 여객선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현재 여객선은 長崎港과 하카다(博多)港⁴⁾으로 각각 하루 5편, 1편이 운항하고 있고 항공교통은 長崎市에 하루 6편, 福江市에 하루 4편이다니고 있어서 비교적 교통은 편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별 종사자수를 보면 1994년 현재 농업이 4,689명, 수산업이 855명, 제조업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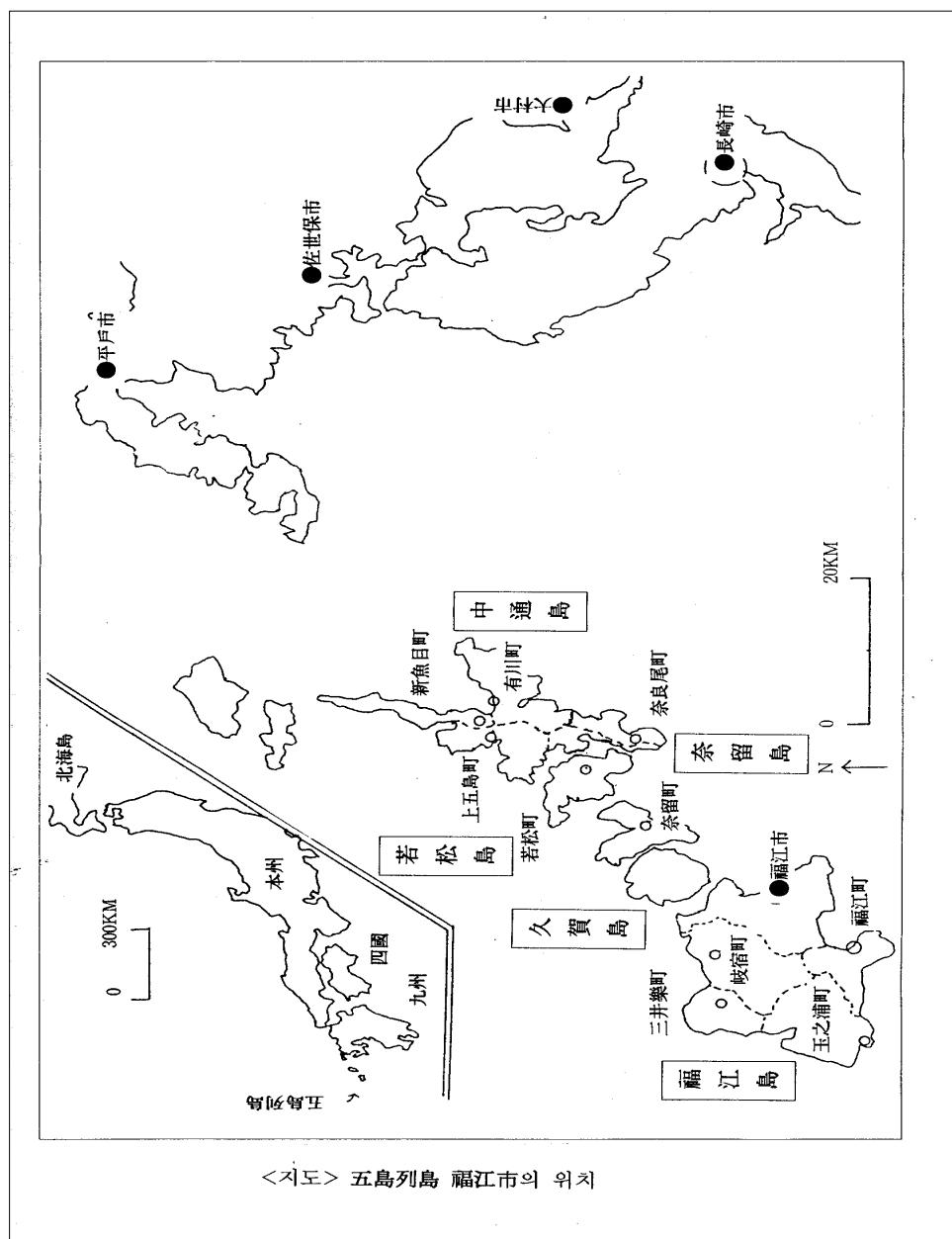
4) 현재의 후쿠오카(福岡)시의 항구를 뜻한다.

가 647명, 상업 종사자가 3,564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福江市, 1996).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서는 市 지역이기 때문에 2·3차 산업의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기와 수도의 보급은 거의 전부 이루어져 있지만 수도의 경우 水源의 고갈 문제와 여름철 관광 성수기의 물부족현상으로 말미암아 제한 급수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분뇨처리와 쓰레기 처리문제도 시설 부족으로 인해 약 85%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長崎縣 五島支廳 *ibid*: 121). 의사 수와 약사·간호사·보조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도 縣 평균을 밀들고 있고 문화·체육시설도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기관도 아동인구의 감소와 상급학교의 부족하여 교육을 위한 島外 轉出이 일반화되어 있다.

2. 福江市의 지역활성화운동의 현황

福江市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회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역활성화운동의 초점도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 향상이나 생활기반을 정비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부의 관광객을 불러 들여 소득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를 지닌 각종 이벤트성 행사로는 ‘태양의 섬·五島 페스티벌’, ‘아루케 아루케 대회’(걷기 대회), ‘바라몬(五島지역의 토속신) 연날리기 대회’, ‘해토마토 마쓰리’(매년 음력 정월에 행해지는 민속행사), ‘요시다(吉田)神社 마쓰리’, ‘토기(戸岐)神社 마쓰리’, ‘창코코’(불교의 염불무용 연행) 등을 들 수 있다. ‘태양의 섬·五島 페스티벌’, ‘아루케 아루케 대회’는 1987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이벤트로서 도서로서의 특성을 십분 발휘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과거로부터 지역민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표현하던 행사였던 것을 새롭게 관광상품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특산품으로 개발된 것으로는 바라몬 연, 五島 소(牛), 五島 손우동, 간고로 모치(고구마를 재료로 만든 전통떡), 오징어·성게 등의 해산물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특산품을 새로 발굴하여 상품화하기 위한 단체로서 ‘五島 요카³ 제품 만들기 회’를 들 수 있다. 지역민의 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조업의 도입과 발전이 도서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적응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만 고용확대라든지 광범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는 온다케(鬼岳)천문대 건설, 五島觀光 歷史資料館 정비사업, 관광 전망공원 및 관광도로 정비사업, 선로 정비사업, 아분제(鑑瀬) 비지터센터 정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업들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환경정비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거주환경이 육지부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경제적 부대효과를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밖에 농업연수생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뗏목체험행사가 유일하게 지역간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이루려는 사업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五島지역 내, 그 중에서 福江市 거주자들만의 교류로 한정되어 있다. 지역활성화운동이 세계화·정보화와 관련을 맺



고 이루어지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福江市의 경우는 세계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福江市의 지

5) ‘요카’(よか)라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의 九州지방 사투리이다.

역활성화사업들은 어업이나 바다와 관련된 도서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IV. 혁신자들의 인식체계

1. 혁신자들의 일반적 특징

혁신자란 상황에 따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제반 자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혁신(innovation)을 이루고자 하는 존재를 뜻한다. 이들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성취 동기가 높고 모험심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원래 혁신자라는 개념은 경제학자들이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R. L. Bee, 1974: 198). 그 후 투자와 효과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개념이 경제적 재화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노력·위신·정치적 힘과 영향력 등으로 확장되면서 사회과학계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Wolf는 문화적 중개자(cultural broker)라는 개념을 문화접면 상황에서 사업이나 정치, 그 밖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테크닉을 찾고자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ibid: 88). 이들은 특정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의 잇점과 한계에 대해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강하게 띤다. 이들에 의해 시도된 새로운 혁신이 성공적일 때,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전체 사회로 확산되어 문화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혁신자들은 중요하지 않던 역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요소를 발굴·선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기도 하며 상호 관련이 없던 요소들을 관련지어으로써 상황을 타개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는 한편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자신의 견해와 행위를 정당화·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조직화를 통해 집단적인 변혁을 시도한다.

福江市의 지역활성화 관련 각종 사업에 관여하는 집단으로는 市廳,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문화협회, 죠나이카이(町內會) 등을 들 수 있다. 市廳의 地域研究課에서는 각 지역에서 기안한 각종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관광협회와 문화협회 및 상공회의소에서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문과 기획, 사업진행 등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町內會 특히 부녀회 조직은 각종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확충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들 각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여론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관광협회와 문화협회, 상공회의소 등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이다. 이들은 五島와 福江市의 생태적·역사적·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하여 해박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이를 기초로 ‘발전’에 대한 나름의 전략을 지니고 있다. 관공서나 지역 외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연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오랜 기간동안의 자발적 학습과 경험을 기초로 학술서적이나 사진집 등을 저술한 토착학자이기도 하다. 福江市나 五島지역의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사업을 기획하며 역할을 분담시키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 福江市의 지역활성화운동의 혁신자로 판단하여 자료와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다음의 다섯 사람이다. 이들 이외에 五島列島의 다른 지역에서 지역활성화에 관심을 지니고 지역의 혁신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도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부분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위의 다섯 사람은 시청에서 문화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고학을 전공한 30대 초반의 하급 공무원과 40대 중반의 관광협회의 사무국장, 문화협회를 주도하고 있는 60대의 두 향토사학자, 초등학교 교장직을 은퇴하고 시청의 지역진흥과에 촉탁으로 근무하고 60대 후반의 한 사람 등이다. 이들을 혁신자로 판단한 근거는 우선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제반 자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 내의 사회적 연망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도덕적 신망을 받고 있고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필자를 포함한 외부인이 福江市 및 五島列島의 제반 사항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접촉한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추천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나름의 시각에 입각하여 책이나 글을 발표하였고 지역 관련의 각종 선전잡지나 팜플렛 등에 단골로 등장하는 필자들이기도 하다. 세 번째, 지역활성화운동의 각종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의 방향이나 주민 설득, 외부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개 및 외부세계와의 정보 교환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혁신자의 생애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예외 없이 島外지역에서 직장생활이나 대학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는 五島나 福江市 출신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九州나 大阪지역에서 도시생활을 경험하여 도시생활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도시생활의 경험을 통해 상실이나 실패를 맛본 사람들로서 이 과정에서 福江市에 어쩔 수 없이 정착하게 된, 인생의 궤적이 크게 바뀐 사람들이다. 이 점은 이들이 외부인에 대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자신이 저술한 책이나 자료를 과시적으로 보여 주다가도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신과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과 이미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달라진 태도를 나타낸다. 특히 五島나 福江市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도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현실적인 생활의 불편함과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간극을 표현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그 둘 사이를 오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의 표

현이기도 하다.

2. 혁신자들의 인식체계의 특성

혁신자들의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은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 발전 등에 대한 담론으로 표현된다. 이 담론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이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월한 지역으로 정체화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실제 있었거나 현재 존재하는 사실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에 맞게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새롭게 해석되기도 한다. 즉 이들의 인식과 관념을 통해 나타난 담론은 실제 사실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사회경제적·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갖게 된 실질적·상징적 필요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설명하는 역사적·문화적 사실이 참된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니라 왜 특별히 어떤 사실이 강조되고 막연하고 근거가 불확실한 사실이 이들의 인식체계 속에서 ‘진실’로서 정당화되고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五島라는 지명이 쓰이기 이전에 古史記(712)와 肥前風土記(713) 등의 사료를 근거로 치카노시마(知訶の島), 치카(值嘉)라 불렸다고 설명한다 (中島功, 1973; 郡家眞一, 1985). 이는 ‘近’의 일본음과 같은 용어로 비록 멀리 위치하고 있으나 가깝게 보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가깝다’는 개념은九州 본토를 중심으로 상정한 것으로 본토-도서지역간의 중심-주변관계를 내포하고 있다.九州 본토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우쿠시마(宇久島)·오지카지마(小值賀島)를 ‘오지카’(小近), 그 외의 五島지역을 ‘오-지카’(大近)로 불렸다는 肥前風土記의 기록 (郡家眞一 ibid: 20)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분분하다. 宇久島·小值賀島에 거주하는 향토사가들은 본토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로 ‘小’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본토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小值賀島의 일본음인 오지카가 小近과 같다는 점도 五島지역 전체에서 일찍이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福江市의 향토사가들은 거리개념으로서가 아니라 ‘五島지역 전체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大’, ‘小’의 개념을 해석한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지역의 우월의식을 경쟁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곧바로 ‘五島’의 공간적 범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에서도 나타난다. 헤이안(平安) 시대 말기 일본과 교역을 하던 중국인들이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五島라는 용어 (五島支廳, 1981)는 실제 140여 개의 많은 섬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다섯 개의 중심이 되는 섬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⁶⁾.

6)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조경만(1997)의 논문 중 5-6쪽을 참조할 것.

福江市의 혁신자들은 五島列島가 일본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본토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외부 세계와의 경계라는 점이 곧바로 주변성의 표징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근세의 일이고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했다는 점을 이들은 강조한다. 특히 문화적 선진지였던 중국 대륙이나 한반도와의 교류가 수월했다는 점을 중시한다. 해류를 통한 항로의 발달이라든가 대륙지역과 유사한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섬사람의 국제적 기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다. 특히 켄토시(遣唐使)와 관련된 여러 담론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福江島를 거쳐가는 길이 遣唐使 파견의 유일한 통로가 아니었고 福江島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항로는 비교적 늦은 제 7차 遣唐使 파견때부터 개발된 것 (三井樂町, 1988: 70-75)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사절이 거쳐갈 정도로 주요한 해양교통의 요지였다는 점을 이들은 주목한다. 五島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경계였다는 史實은 현대에 와서 지역활성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사적·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五島列島가 지리적 주변성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명치시대 이후부터이다. 博多, 사세보(佐世保), 長崎 등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발달은九州나 국가의 五島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점차 五島지역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도시적 삶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언제나 본토에 비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대의 교통로의 발달이 이곳의 발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등치시켜 지역정체성의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지역주민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편으로 중앙과 연결된 정치외교적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 혹은 본토의 어느 지역과도 달리 외부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외부지향성과 개방성을 지닌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해양 교통로의 요지였음과 동시에 본토와는 다른 지역정체성을 지닌 곳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도서지역의 이중적인 지역정체성, 즉 중심-주변이라는 인식체계상의 준거 기준을 통해 볼 때 중심지향적인 속성과 五島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외부지향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활성화운동이 전개되는 구체적 국면 속에서 이 중 어떠한 측면이 강조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상황적이다.

도서성이거나 중심-주변에 대한 인식은 때로 전통-현재에 대한 인식과 착종되어 나타난다. ‘바다’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 이미지로서 지역 주민들에서 표상된다. 때론 귀중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근대화과정을 통해서는 주변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소로, 과거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으로서 지역정체성을 가져주는 귀중한 소재로, 현금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이미지 모두를 지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도서성⁷⁾으로 대표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중 역사와 관련된 자원들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재생되어 나타난다. 중심부에 속한 지역 민이라면 중요성을 지니지 못했을 ‘전통’으로 총칭되는 역사적 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발굴되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이단(西端: 서쪽 끝)의 만요(萬葉)의 故鄉’으로 五島지역을 설정하고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萬葉공원을 조성하고 萬葉集 관련 낭송회 등을 개최하며 일곱 가지의 테마를 지닌 산책로를 만들고 중국쪽을 향하여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萬葉集 속에 五島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福江島의 옛 지명 중 하나인 ‘미마라쿠’라는 단어 하나가 등장할 뿐으로 실제 이 지역과 관련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萬葉集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나라(奈良)·오사카(大阪)지역이 아닌 벽지의 도서지역에서 萬葉集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의외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 등이 결합한 산물이라고 하겠다. 외부 세계로 통하는 관문⁸⁾으로서의 신비로움과 遣唐使의 기항지였다는 점 등 실제 萬葉集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史實들이 이 과정에서 정당화의 논리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이 지역활성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현재의 필요에 의하여 역사적·문화적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하고 조작하여 ‘새로운’ 전통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에 福江市 일대에 17개에 달하는 많은 부락(部落)가 있었다는 史實은 애써 감추어진다. 따라서 혁신자들에 의해 재구성되는 전통이란 상황에 맞게 선별되는 선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福江市의 혁신자들의 발전에 대한 담론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의 대화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과거의 捕鯨業의 번성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五島列島의 다른 섬에 거주하는 항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五島지역의 발전은 九州 본토로부터 가까운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福江島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시대에 우쿠(宇久)氏라는 호족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이는 645년 야마토(大和)改新 이후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福江島가 가장 낮은 단위인 교(郷)로 취급되었다는 사료 (郡家眞一 ibid: 24)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선사·고대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많이 발견되는 五島列島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보다 오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반해 福江市의 혁신자들은 五島지역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7) 도서성은 大洋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홍성흡(ibid: 169-171)을 참조하기 바람.

8) 福江島의 서쪽 끝은 오키나와(沖繩)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일본 영토의 서쪽 끝에 해당하였다. 이를 모티브로 한 각종 마쓰리가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고 등대, 전망대 등의 시설이 건설되어 있다.

예로부터 福江島 인근 지역은 전복 채취가 성했었고 중세에 이르러서는 다랑어의 어망어업 이외에 낚시어업을 주로 행했었다고 한다 (郡家眞一 ibid). 이후 중세에 크게 발달한 것이 포경업이었다. 원래 長崎의 연근해에서 행해지던 그물을 이용한 포경업이 17세기 중엽 福江島 일대로 확장되면서 五島藩의 번성을 가져올 정도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698년에는 이 지역에서 83마리의 고래를 잡았고 18세기 말에 九州 본토에서는 ‘五島로, 五島로’라는 노래가 생겨날 정도로 아주 희망자가 쇄도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久保清・橋浦太雄, 1934). 이 때의 화려했던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현재의 지역활성화운동에 ‘전설’과 같이 자리잡고 있다. 포경업을 통해 개인의 자본 축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었다는 것은 현재에도 이 지역이 발전의 막연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바다’만이 지역 발전을 이루는 자원으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자연자원을 전유하는 형태의 단순한 발전전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자원의 전반적인 감소와 이에 따른 어로의 전반적인 쇠퇴, 과소화로 대변되는 인구변동 등의 조건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다. 일정한 의도와 목표를 지니고 바다의 재반자원을 상품화하는 전략을 창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혁신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福江市의 특산물이 지정되어 대외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독특한 상품포장 등을 개발한 것은 전국적인 지역활성화운동의 뿐이 불기 이전부터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 다만 나중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몇몇 특산품이 지역활성화운동의 대상으로 포착된 것뿐이라고 한다. 특정 특산품이 지역과 동일시되는 상징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자원이 사회문화적 발전전략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발전과 (자연 상태의) 보존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인식의 준거기준 자체가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상품명을 지역의 사투리로 짓는다든지 가능하면 인공을 가미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고향’, ‘無垢’, ‘순수’ 등의 이미지를 상품에 투사시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이들의 지적은 발전과 보존이 상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잘 드러난다. 혁신자들은 지역활성화의 전략이 海流와 航路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활성화의 주요 자원은 유무형의 문화재이다. 도서지역의 유사 문화재의 분포는 해류나 항로를 따라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항로는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지역의 외교적 관계의 산물이었던 데 반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화와 역사적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설정된 항로이다. 五島列島 일대를 흐르는 해류와 항로는 중국의 양자강과 沖繩·카고시마(鹿兒島)로 연결된다. 이들은 항로와 해류를 따라 공유하고 있는 문화요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유적 관광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우선 鹿兒島와 五島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沖繩와 중국을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이 계획이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결합하여 현대인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도서지역만의 특성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福江市에서 행해지는 ‘태양의 섬·五島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는 떼문지 않은 자연의 이미지를 발전과 결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1987년부터 매년 8월 하순에 개최되는 이 행사의 공식적 슬로건은 ‘끝없는 낭만을 품은 五島’, ‘별이 쏟아지는 섬’, ‘꽃이 피는 섬’이다. 낭만이나 별·꽃·섬 등의 이미지는 島外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표상한다. 행사는 저녁 노을 마라톤과 별밤 콘서트로 구성되는데 건강이라는 이미지와 자연스러움, 낭만 등의 이미지를 동일함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일본 최후의 석양을 받으며 달리자’라는 발상은 일본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 준다. 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내세우는 것은 서구적인 발전개념으로 볼 때 미발전되어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부인들을 겨냥한 전략 못지 않게 혁신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행사의 진행방법이다. 마라톤에는 천 수백 명, 별밤 콘서트에는 약 오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 일손을 사서 한다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들게 된다. 기획과 진행은 市廳이나 관광협회·상공회의소 등의 인사가 맡지만 실제의 모든 준비와 보조역할은 町內會·婦女會·중고등학생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로서 간단한 기념품을 선물로 받기는 하지만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는다. 혁신자들은 이 점이 과거의 공동체적 지역정체성을 재생시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의 공동체적 유대관계의 물적 토대가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주민 상호간에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한다는 사실을 통해 협동 의식을 고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지역의 공동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내재화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요소 혹은 원래의 문화요소에 대한 보존이 결코 지역의 활성화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계기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福江市の 혁신자들은 도서성과 중심-주변, 전통-현재, 발전-보존이라는 인식체계상의 준거기준 속에서 나름의 지역활성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정체성의 준거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은 도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성 이외의 다른 준거기준들은 명확하게 구분된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면담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대화주제에 따라 때로 도서성이 중심-주변관계로 표상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전통-현재 혹은 발전-보존이라는 준거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즉 도서성의 개념 속에서 여타의 준거기준들이 홀재되고 상호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혁신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

는 제반 자원을 의식적으로 결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부인의 눈에는 때로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름의 합리화 기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전략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지역의 생활영역과 생업에 놀아들어 있는 특성에 기초하여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이를 궁극적으로 지역정체성으로 강조하고 표방하는 역할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내재화·합리화시키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것이기도 하다.

V. 결 론

이 글에서는 일본 도서지역에서 지역활성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혁신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지역정체성과 발전전략에 담겨져 있는 인식체계상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일본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활성화운동의 방향도 내발적 발전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발전의 이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업이나 바다와 관련된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여러 지역활성화사업의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福江市의 지역활성화운동을 주도하는 혁신자들의 지역정체성의 핵심은 도서성(insularity)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의 도서성의 개념은 지리적 격리에 의한 주변성과 그 반대 측면으로서의 해양을 통한 외부세계와의 교류의 활성화, 바다를 통한 해양자원의 전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도서성의 개념범주는 중의적이고 애매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어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도서성의 개념은 중심과 주변, 전통과 현재, 발전과 보존이라는 이항대립적인 하위 개념범주들로서 구성되고 있다. 이 하위 개념범주들은 애매모호하고 중의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의 대상이 되는 지역활성화사업 및 대화주제에 따라 도서성이 중심-주변의 틀 내에서 설명되기도 하고 전통-현재 혹은 발전-보존관계로 의미가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도서성에 대한 인식체계가 외부인의 눈에 상황적이고 때론 이율배반적으로 보인다 해서 허황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들은 다만 자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총체적 삶의 조건 속에서 최선의 적응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만큼 福江市의 제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런 조건 속에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한계를 한계로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본토에 비해 사회경제적·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이지만 본토에서 가질 수 없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의 부분이다. 따라서 가능성의 영역을 특정한 논리를 동원해 유의미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부적으로는 지역정체성에 대한 공감대

를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사회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다.

혁신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활성화운동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생태적·사회경제적·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재해석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의미를 지니는 자원들이 선택되어 재구성되고 강조된다.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결코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것이 아니며 ‘지역’에 매몰된 좁은 시각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혁신자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상적인 것들을 상황에 따라 일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자원으로 만들고 지역활성화와 발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신자들은 새로운 문화형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내발적 발전론의 핵심 이념을 논리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도서라는 특성에 걸맞는 전략을 세우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홍보하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이 유의미하다고 여기는 의미와 실천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자들이 자신의 인식체계 속에서 만든 지역활성화와 발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실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은 지역정체성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로서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들이다.

참 고 문 헌

- 조경만. 1997. 「일본 도서지역의 지역정체성과 발전에 관한 역사 담론」. 『아시아문화연구』. 창간호: 99-122.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홍성흡. 1997. 「일본의 지역활성화운동과 도서지역」. 『아시아문화연구』. 창간호: 153-180.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橋本徹 編著. 1991. 『地域を創る知慧: 町を活性化させる意識と發想』. 東京: 學陽書房.
- 久保清・橋浦太雄. 1934. 『五島民俗圖誌』. 東京: 一誠社.
- 郡家眞一. 1985. 『海鳴の五島史』. 東京: 圖書刊行會.
- 東海自治體研究所 編. 1984. 『コミュニティ活動入門』. 東京: 自治體研究社.
- 福江市. 1996. 『第4次 福江市總合計劃』. 福江市.
- 本田昭一. 1987. 『私たちの町つくり運動』. 東京: 新日本出版社.
- 山崎丈夫. 1994. 『現代の住民組織と地域自治』. 東京: 自治體研究社.

- 山崎充 編. 1991. 『豊かな地方つくりを目指して』. 東京: 中央公論社.
- 三井樂町. 1988. 『三井樂町郷土誌』. 三井樂町.
- 色川大吉. 1994. 『昭和史 世相篇』. 東京: 小學館.
- 西川潤. 1989. 「内發的發展論の起源と今日的意義」. 鶴見和子・川田侃 編. 『内發的發展論』. 東京: 東京大學校 出版會.
- 松岡昌則. 1991. 『現代農村の生活互助: 生活協同と地域社會關係』. 東京: 御茶の水書房.
- 乗本吉郎. 1989. 『過疎再生の原點: 物的整備よりも人間つくりを』.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五島支廳. 1981. 『五島要覽』. 長崎縣廳.
- 玉野井芳郎. 1973. 『文明としての經濟』. 東京: 潮出版.
- _____. 1977. 『地域分権の思想』.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_____. 1985. 「人間におけるジェンダーの發見」. 『ヘルメス』. 1985年春季号.
- 猪瓜範子. 1989. 『まちづくり文化産業の時代』. 東京: ぎょうせい.
- 中島功. 1973. 『五島編年史』. 東京: 圖書刊行會.
- 清成忠男. 1978. 『地域主義の時代』.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總理府. 1977. 『國民生活に關する世論調査』. 日本國總理府.
- 横田克巳. 1992. 『參加型市民社會論』. 東京: 現代理論社.
- Bailey, F. G. 1960. *Tribe, Caste, and N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arth, F. 1956. "Ecological Relationships of Ethnic Groups in Swat, North Pakistan." *American Anthropologist*. 58: 1079-1089.
- _____. 1963. *The Role of the Entrepreneur in Social Change in Northern Norway*. Bergen: Scandinavian University Books.
- _____. 1967. "O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Anthropologist*. 69: 661-669.
- _____. 1981. *Process and Form in Social Lif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ee, R. L.
- _____. 1974. *Patterns and Processes*. New York: The Free Press.
- Bennett, J. 1969. *Northern Plainsman*. Chicago: Aldine.
- Boissevain, J. 1974. *Friends of Friends*. Oxford: Basil Blackwell.
- Friedman, J. 1988. "Cultural Logics of the Global System." In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London: SAGE.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jording, C. 1988. *The Cerro Colorado Copper Project: Panama,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Guaymi Indians*.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Gluckman, M., ed. 1964. *Closed Systems and Open Minds*. Chicago: Aldine.
- Hobsbawm, E. & T. Ranger.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Irokawa Daikichi. 1978. "The Survival Struggle of the Japanese Community." In *Authority and the Individual in Japan*. J.V. Koschman, ed.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 Kunkel, J. H. 1970. *Society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linowski, B. 1961.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New York: Dutton Press.
- Nash, J. 1979. *We Eat the Mines and the Mines Eat U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Ong, A. 1987. *Spirits of Resistance and Capitalist Discipline: Factory Women in Malaysia*. Albany: SUNY Press.
- Scott, J. C.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oler, A. 1985. *Capitalism and Confrontation in Sumatra's Plantation Belt*. New Haven. Coon: Yale University Press.
- Taussig, M. 1980. *The Devil and Commodity Fetishism in South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olf, E. R. 1965. "Aspects of Group Relations in a Complex Society: Mexico." in *Contemporary Cultures and Societies of Latin America*. D. B. Heath and R. N. Adams, eds. New York: Random House.

Cognition to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of Entrepreneurs in Japanese Island —A Case Study of Fukue city in Goto archipelago—

Hong, Sung-Heup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cognitive system for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of entrepreneur who takes leading role in local activation movement of western islands in Japan. In recent years, endogenous development which the shortcut to accomplish local activation is looking for the well-matched course with peculiar local circumstances, come to the front. The developmental orientation of entrepreneur in Fukue city is similiar to this point of view. So the peculiarity of island is reflected in their cognitive system to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The focal frame of reference to local identity of entrepreneurs in Fukue city is 'insularity'. Meaning of insularity include frames of reference of cognitive system which are center-periphery, tradition-modernity, development-preservation (of nature). Connecting this frames with the concept of insularity complicatedly, the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al strategy are creat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ecological, historical, socioeconomic, cultural resources which connected with insularity, are had symbolic meaning in the context of center-periphery, tradition-modernity, development -preservation. Therefore, meaning of insularity is changed in according to situations and include ambiguity and ambivalence. The fundamental cause of it is importance of looking for way of suitable interpretation to peculiar situation. And because it is significant to search for pragmatic advantages by way of concept of insularity. To live not only affluently but meaningfully, it is necessary to make new concept, meaning and connotation of usual resources in local level and areas. In this context entrepreneurs are really cultural guides in local community.